

캠코는 ‘캠코더’가 장악? 임원 70%가 ‘親文낙하산’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재인선거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금융공공기관에 캠코더 인사 몰려
바른미래당 공공기관 전수조사 공개
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집중
국민 안전 위협하는 관치금융 우려

금융공공기관에 이른바 ‘캠코더 인사’들이 급속도로 쏠리는 모양새다. 특히 캠코더 인사들이 쏠린 금융공공기관으로는 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눈에 띈다.

이들 금융공공기관에 캠코더 인사들이 자리매김했음은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회가 최근 공개한 ‘공공기관 기관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 전수조사’로 인해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정책위는 작년 9월 ‘친문 낙하산 공공백서’를 통해 365명의 낙하산 인사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작년 9월 1차 발표 이후 ‘그해 12월 31일’까지의 추가 내용인 셈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총 임원진 중 캠코더 인사의 비율(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작년 말까지)은 70%를 육박한다.

우선 자산관리공사다. 자산관리공사 총 임원 16명 중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임원 수는 12명이다. 그중 캠코더 인사는 8명이다. 이는 총 임원의 67%를 차지하는 수치다.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 문재인 임명 임원 중 캠코더 낙하산 67% (12명 중 8명)				
이름	직책	임기	캠코더 인사 관련 이력	
엄○○	감사	18.07.23~20.07.22	행정부 관료 낙하산	
천○○	이사	18.03.23~20.03.22	최홍식 전 금감원장(하나은행)	
제○○	이사	18.04.12~20.04.11	부산연고 / 동아대 로스쿨 석좌교수	
이○○	이사	18.04.12~20.04.11	부산연고 / 부경대 경영학부 교수	
박○○	이사	18.04.12~20.04.11	부산연고 / 내일신문, S&T홀딩스	
안○○	이사	18.11.29~20.11.28	부산연고	
정○○	이사	18.11.29~20.11.28	부산연고 /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구청장	
임○○	이사	18.11.29~20.11.2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HF 주택금융공사 ▶ 70% (10명 중 7명)				
이○○	사장	18.01.03~21.01.02	부산시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	상임이사	18.03.09~20.03.08	문재인 후보 부산시선거대책위 대외협력단장	
김○○	부사장	18.02.01~20.01.31	한국은행 퇴임 관료 낙하산	
손○○	비상임이사	18.02.12~20.02.11	노무현재단 위원 / 19대 민주당 의원(부산 사상)	
최○○	비상임이사	18.03.29~20.03.28	금융위 추천인사	
조○○	비상임이사	18.02.12~20.02.11	문재인 후보 국민주권 부산선대위 공동본부장	
박○○	상임이사	18.09.03~20.09.02	부산연고 / 부산광역시 관리 낙하산	
KDIC 예금보험공사 ▶ 43% (7명 중 3명)				
위○○	사장	18.09.18~21.09.17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김○○	비상임이사	18.03.28~20.03.27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강○○	비상임이사	18.05.18~20.05.17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바른미래당이 공개한 자산관리공사 내 캠코더 임원진은 엄광섭 감사, 천경미·제정부·이유태·박성현·안태환·정권영·임춘길 이사 등 8명이다. 엄감사는 행정부 출신 관료 낙하산, 천 이사는 최홍식 전 금감원장 측근 낙하산, 임 이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낙하산으로 각각 분류됐다. 나머지 이사들은 부산에 연고를 둔 인물들로 지역출몰 우려를 유발했다. 이와 관련 최홍식 전 금감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

하성 전 정책실장의 측근으로 정평이 났다. 경기고등학교 1년 선후배 사이로 친분이 두텁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장 전 정책실장 재직 시 금융감독원장직에 최 전 금감원장을 추천했다. 다만 최 전 금감원장은 본인이 하나금융지주사장이던 지난 2013년, 대학동기의 아들을 하나는 행에 채용특례를 준 의혹으로 금감원장직을 내려놨다.

다음은 주택금융공사다. 주택금융공사 총 임원 14명 중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임원 수는 10명이다. 그중 캠코더 인사는 7명이다. 이는 총 임원의 70%를 차지하는 수치다.

바른미래당이 공개한 주택금융공사 내 캠코더 임원진은 이정환 사장, 김민호 부사장, 이동윤·박정배 상임이사, 손봉상·최동원·조진주 비상임이사 등 7명이다. 이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부산 남구갑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이력의 소유자다.

김 부사장은 한국은행 퇴임 관료 낙하산이고, 박 상임이사는 부산시 관료 낙하산, 최 비상임이사는 금융위원회 추천 낙하산이다. 이상임이사와 조 비상임이사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낙하산이고, 손 비상임이사는 노무현재단 낙하산이다.

예금보험공사에도 빠른 속도로 캠코더 인사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주택예금보험공사 총 임원 13명 중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임원 수는 7명이다. 그중 캠코더 인사는 3명이다. 이는 총 임원의 43%를 차지하는 수치다. 눈여겨볼 점은 작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빠르게 2명에 임원이 추가된 것이다.

바른미래당이 공개한 예금보험공사 내 캠코더 임원진은 위성백 사장, 김용기·강계두 비상임이사 등 3명이다. 위 사장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낙하산이고, 김 비상임이사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출신 낙하산, 강 비상임이사는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낙하산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분명 2017년 대통령직 취임을 통해 ‘기획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임원진 이력을 살펴보면 한숨이 나온다. 관치금융을 펼치려는 게 아니면 왜 이런 인사들이 임원진으로 임명된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낙하산 인사-편안한 캠코더 일자리, 불안한 국민의 삶’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공공기관의 효율성 저하, 세금 낭비로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우승준 기자 dn114@metroseoul.co.kr

가스공 임원진 절반이 3개월 사이 ‘캠코더’ 전진배치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낙하산 5명

한국가스공사 임원진 절반 이상이 3개월만에 이른바 ‘캠코더 인사’들로 구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더 인사’란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인사·여권 성향 시민단체 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일컫는 말이다.

한국가스공사에 캠코더 인사들이 자리매김했음은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공공기관 기관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 전수조사’로 인해 드러났다. 바

른미래당 정책위는 작년 9월 ‘친문 낙하산 공공백서’를 통해 365명의 낙하산 인사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작년 9월 1차 발표 이후 ‘그해 12월 31일’까지의 추가 내용인 셈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총 임원진 중 캠코더 인사의 비율(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작년 말까지)은 절반을 차지한다. 한국가스공사 총 임원 11명 중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임원 수는 9명이다. 그중 캠코더 인사는 5명이다. 이는 총 임원의 56%를 차지하는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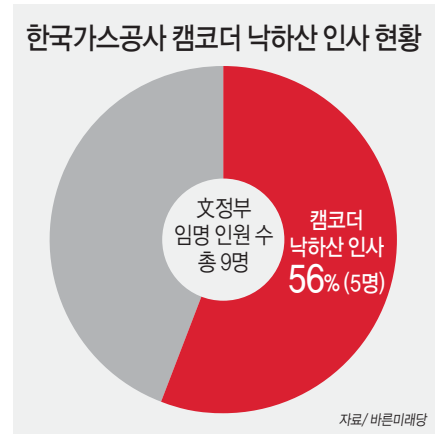
눈여겨볼 점은 한국가스공사 내 캠코

더 인사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사이에 5명이 대거 자리매김한 점이다. 바른미래당이 작년 9월 공개한 1차 전수조사 때 한국가스공사 내 캠코더 낙하산 움직임은 없었다.

바른미래당이 공개한 한국가스공사 내 캠코더 임원진은 김혜선·주진우·김의현·김창일·이병화 비상임이사 등 5명이다. 김 비상임이사는 작년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만재 교육감 예비후보를 지지선언한 인물이다. 주 비상임이사는 서울시(박원순) 정책특보를 지낸 인물이며, 김창일 비상

임이사는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다. 김의현 비상임이사는 문재인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무특보를 지냈다. 이 비상임이사는 제18대 국회의원총선거 때 광주서구를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했고, 광주광역시 정부부시장을 지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작년 10월 고용비리 의혹으로 여론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 1245명 중 1203명이 정



규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됐다. 다만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25명이 한국가스공사 임직원 24명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승준 기자

도소매·숙박·음식 대출 200조 돌파

한은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전년동기비 10.7% 증가... 역대 최고

지난해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잔액이 10년 연속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예금취급기관의 전체 산업대출 잔액은 전분기 대비 14조3000억원 증가한 1121조2000억원이었다.

산업대출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를 포함한 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이 은행,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뜻한다.

산업별 대출금 추이를 보면 제조업(344조8000억원)은 지난해 3분기 4조7000억원 증가에서 2조2000억원 감소로 마이너

스(-) 전환했다. 같은 기간 건설업(39조2000억원)도 8억원 증가에서 1조9000억원 감소로 돌아섰다.

서비스업(677조원)은 18조원 증가에서 17조3000억원 증가로 증가 규모가 소폭 축소했다. 다만 서비스업 대출의 연간 증가율은 1년 전보다 9.5% 늘며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도소매·숙박·음식점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도소매·숙박·음식점 대출 잔액은 200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했다.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한은 관계자는 “도소매·숙박·음식점 대출은 작년 2분기부터 급격히 늘어났다”며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은 비슷한 수준인데 법인이 늘어나면서 대출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희주 기자 hj89@

“카드 수수료율 인상 車산업 회복 악재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 자동차 산업 경영회복에 부정적 영향 우려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5일 자동차업체와 신용카드사 간 수수료율 갈등과 관련해 자동차업체의 경영위기가 악화할 것이라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발표했다. 현대·기아차가 카드사 수수료 인상에 반발해 5개 신용카드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자동차업체의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입은 자동차 구매 때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며 증가하고 있다”며 “조달관리 하락과 연체비용 감소 등에 따라 수수료율 인상 요인이 없지만, 인상을 강행한 것은 자동차산업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수료율 인상이 경영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업계와 정부의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성운 기자 ysw@

2019년 고부가가치 직종 전문인력 양성 직업교육훈련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지정 남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입문부터 디자이너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교육기간	2019. 3. 25 ~ 8. 9 (월~금, 14:00~18:00)
교육내용	- 그래픽디자인(포토샵, 일러스트, 편집디자인) - 웹퍼블리싱(html5, css, JavaScript/jQuery) - 쇼핑몰 제작(브랜딩, 기획운영, 디자인) - 현장견학, 현장실습
참가대상	초대졸 이상 취업희망 여성 *20~30대 청년층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참여가능
접수방법	방문 및 이메일(nambu@seoulwomanup.or.kr)
접수기한	3. 20(수) 18시까지(※면접일정 개별통보)

*본 과정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 | 남부여성발전센터 |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50길 23 ☎02)802-0922 | 검색하세요!